일본, 에멀젼산업 회복국면

94년 출하량 4.7% 증가 … 도료용 14만7067톤 7.1% 신장

일본의 에멀젼산업이 예상외로 빠르게 성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멀젼공업회에 따르면, 94년 일본의 에멀젼 출하량은 93년대비 4.7% 성장한 51만181톤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도료·접착 등 주요 수요산업이 회복세에 있고, 이러한 산업제품의 용제형에서 수계형으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4년은 초산비닐모노머·아크릴수지 등 원료가격의 상승으로 생산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에멀젼도료 출하실적 (단위 : M/T, %)

구 분		1993			1994		
		수 량	점유율		수 량	점유율	
도 료		137,264	28.2		147,067	28.8	
제 지		14,933	3.1		16,052	3.2	
섬 유		57,882	11.9		56,005	11.0	
토 목		40,249	8.2		41,380	8.1	
접착	목 공	64,777	13.3	35.7	66,967	13.1	35.5
	합판이차가공	31,771	6.5	17.5	33,510	6.6	17.7
	저가공·기타	84,928	17.4	46.8	88,413	17.3	46.8
	계	181,476	37.2	100.0	188,890	37.0	100.0
기타	접 착	30,847	6.3	65.2	31,678	6.2	60.8
	기 타	16,437	3.4	34.8	20,390	4.0	39.2
	계	47,284	9.7	100.0	52,068	10.2	100.0
수 출		8,138	1.7		8,719	1.7	
합 계		487,226	100.0		510,181	100.0	

주) 일본에멀젼공업회 35개 회원사 기준

95년에 들어서서는 원료가격 상승분을 일부 제품가격에 전가, 가격인상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35사를 기준한 94년 출하량을 보면, 51만181톤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출하량은 도료용 14만7067톤 7.1%, 제지용 1만6052톤 7.4%, 토목용 4만1380톤 2.8%, 접착용 18만8890톤 4.1%, 기타 5만2068톤 10.2%, 수출 8719톤 7.1%로 각각 증가했으나, 섬유용은 5만6005톤으로 3.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멀젼산업은 버블경제 붕괴이후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94년부터 도료를 중심으로 주요 수요산업이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에멀젼 수요도 회복궤도에 올라섰고, 주로 주택분야의 재건축시장 확대도 주요한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6/26>